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폐막

23일 성황리 마무리·2만5000명 방문... 맥주·지역 먹거리·공연에 '뜨거운 호응'

초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맥주축제 '2024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어느 때 보다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축제는 군산 수제맥주 외에 자매도시인 김천과 협업체 만들어낸 '김천맥주', 군산 맥아를 원료로 만든 충남 홍성 수제맥주, 군산 교류도시인 대안 업체의 수제맥주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며 가히 '맥주 페스티벌'의 위상을 높였다.



초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맥주축제 '2024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어느 때 보다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오후의 무더위가 채 가지지 않은 21일 저녁 6시에 막을 올린 '2024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은 행사 시작 전부터 맥주와 지역 먹거리를 즐기며 친구, 연인, 가족들과 함께 즐기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또한 김충섭 김천시장, 김기웅 서천군수가 직접 방문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는 영상 축사로 군산 수제맥주축제의 발전을 기원했다.

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특히 행사기간 내내 무대는 신촌블루스, 김창완밴드, 부활 등 16개 국내의 정상급 밴드가 화려한 라이브 공연을 선보여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공연을 보던 관객들 역시 맥주와 블루스를 즐기며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가벼운 건배와 미소를 교환하는 등 군산수제맥주 축제를 한껏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온 40대 가장 A씨는 "가족들과 군산여행을 즐기다가 맥주 축제가 있다는 걸 알고 찾아왔다"면서

"처음 군산 맥주를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도 너무 좋았고, 우리 국산 맥아로 만들었다고 하니 더 맛있었던 것 같다. 군산여행의 추억을 하나 더 만든 것 같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올해 맥주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군산시는 군산맥주와 군산시의 도시브랜드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졌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지역농업·도시재생·청년창업을 연계한 관광 자원 육성, 군산맥아 판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공간 정보 정확도 높인다

2028년까지 5년간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추진

익산시가 국가 공간정보의 기본이 되는 연속지적도를 고도화한다.

익산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연속지적도는 지적도와 일야도 등 개별지적도의 경계점을 연결해 연속으로 작성한 도면이다.

도시계획, 산림, 농지 등 행정업무의 기초가 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같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개별지적도를 정비한 후 연속지적도를 정비해 이격, 겹침 등의 오류사항을 개선한다.

또한 기존 지역측지계 좌표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한다.

올해 5개 면동을 시작으로 5년에 걸쳐 익산시 전역의 도면을 정비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정보의 고품질화로 국가 공간정보사업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신뢰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적공간정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군산시, 내달부터 본격 가동

군산시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낮 활동 또는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2년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따라 △24시간 개별 1:1 △주간개별 1:1 △주간그룹형 1:1 3가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자는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산시는 시행에 앞서 제공기관 및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비스 위탁기관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

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군산시 소재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등이 대상이 되며 향후 공개 모집을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도정 행동 정도와 일상생활 능력·의사소통 능력·가정 내 보호 체계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서비스조정위원회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환경국장은 "기존 소외되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여름철 식품위생 관리 강화

식품 취급·판매업소·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카페 등 집중 점검

익산시가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여름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품 취급·판매업소와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 카페 등 총 100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식품업소를 방문해 위생상태와 식품 수거 검사, 1:1 컨설팅을 진행한다.

먼저 무신고 제품 여부, 취급·관리

상태, 소비 유통기한 경과 제품, 냉장·냉동 제품 보관 온도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식품 수거·검사의 경우 냉동 음료와 냉면 육수를 수거해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독균 검사, 1:1 컨설팅으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과 식재료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한다.

익산시는 점검 결과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현장 지도와 행정처분 추진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저출생 문제 해결 지원사업 시민들 '큰 호응'

익산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익산시에 따르면 6월 현재 산모 287명, 난임부부 21쌍이 신청을 완료했다. 익산시는 올해 한방치료 지원 대상을 산모 500명, 난임부부 30쌍으로 계획했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익산시에서 도내 최초 시작한 사업이다. 출산 1년 이내의 산모를 대상으로 지정 의료기관(한의원, 산부인과)에서 산후치료 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성별 구분 없이 부부 한 쌍 기준 23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3년간 익산시 난임부부 93쌍이 한방 난임치료를 받아 22쌍이 임신에 성공했다.

사업 신청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063-859-4931, 493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저소득가정 건강함 여름나기 캠페인 실시

군산시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여름나기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여름나기 나눔 캠페인은 무더위에 취약한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등 저소득 가구에 여름 이불, 선풍기, 영양꾸러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저소득 가정이 여름을 안전하고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나눔 캠페인은 지역주민, 단체, 기업 등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시청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성금이나 성품을 기탁하면 된다. 특히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하면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24년 저소득가정 여름나기 캠페인' 후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복지정책과(☎454-3073)로 연락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역화폐 '다리로움' 가맹점 일제정비

폐업·비활성·사용 제한 업체 해지 조치... 가맹점 10% 추가 지급·소비자 20% 할인 혜택 등

익산시가 지역화폐 '다리로움' 가맹점 정비에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다리로움' 가맹점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리로움 가맹점은 모바일결제(QR) 가맹점을 포함해 1만 7,000여 개소이다.

이번 일제정비 대상은 폐업 및 다리로움 카드 매출액이 없는 비활성 가맹점과 다리로움 사용 제한 업체인 영업장 면적 800㎡ 이상 대형식자재마트이다.

해당 가맹점을 해지 조치해 이용자

들의 혼선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점포를 관리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가맹점 정비와 함께 다리로움을 통해 시민과 지역 상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 32개소, 청년몰 17개소 등 정책과 관련한 경우 지정 가맹점에 다리로움 결제 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는 정책수당과 충전 시 지급받는 인센티브 10%를 포함해 총 20%의 다리로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바일결제(QR)를 운영해 매출액 8억 원 이하 가맹점주는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이용자는 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으로 모바일결제 가맹점은 2022년 4,370개소에서 2024년 6월 기준 6,223개소로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일제정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리로움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리로움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